



2024년 4분기



동남권 인구동향

2024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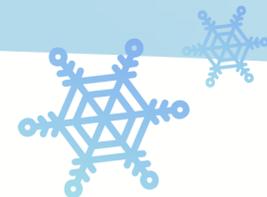


※ 출처 : 2024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2024년 3분기 기준



※ 출처 : 인구동향조사(2024년 3분기 잠정치), 국내인구이동통계(2024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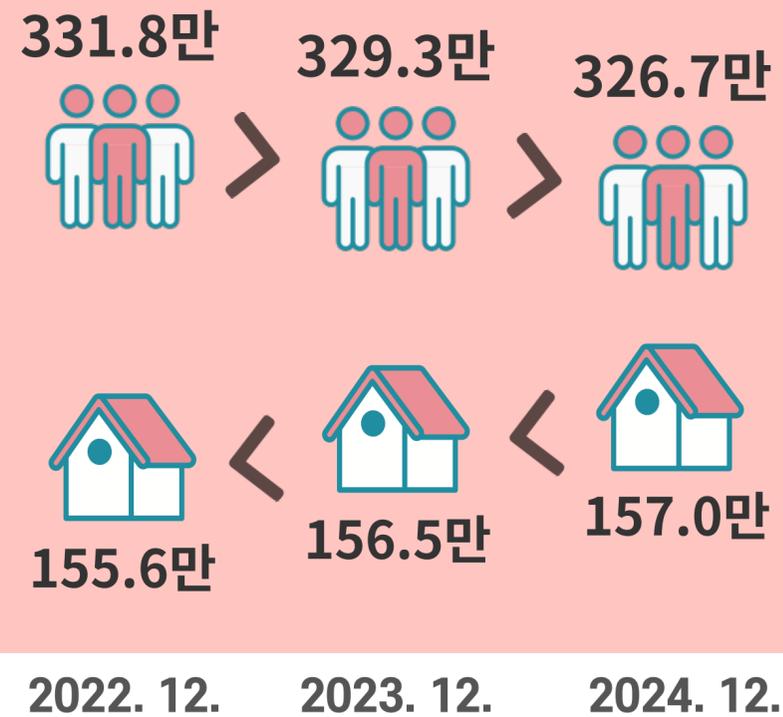


부산 주요 인구동향



주민등록인구, 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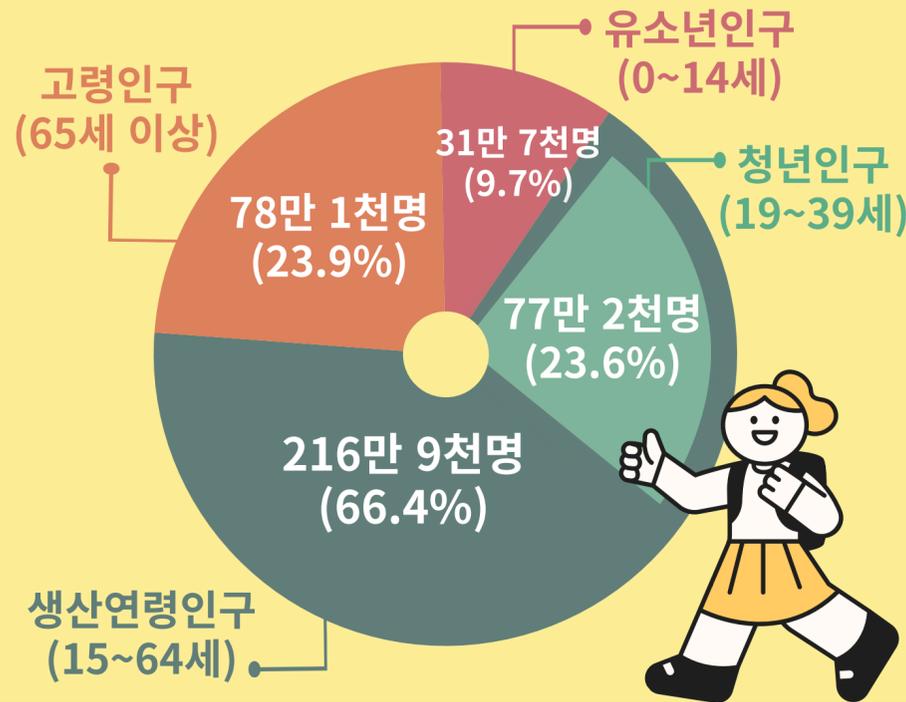
(단위: 명, 호)



※ 출처 : 주민등록인구현황

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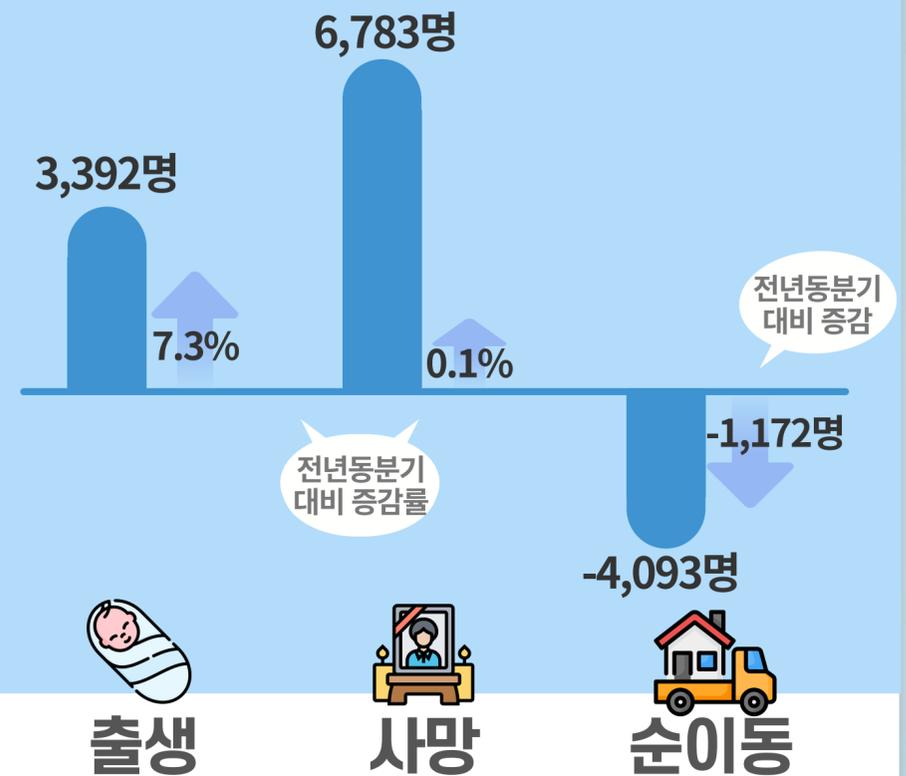
(단위: 명, %)



※ 출처 : 2024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출생, 사망, 순이동자 수

(단위: 명, %)



※ 출처 : 인구동향조사(2024년 3분기 잠정치), 국내인구이동통계(2024년 3분기)

부산 주요 인구이슈

"부산시,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전담조직' 출범" (전국매일신문 / 241006)

오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시 전담 조직이 출범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라이즈)하에 지역대학과 함께 유치에서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

"초고령화 사회 부산, 대학과 손잡고 '노인 행복도시'로" (연합뉴스 / 241011)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노인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하하(HAHA) 365 프로젝트'를 추진함
부산시는 노인복지시설 개방과 인프라 확충 등 3개 전략 8개 과제로 된 'HAHA 365 프로젝트' 비전을 발표함

"출산율 저조 부산시 '애지중지 프로젝트' 가동" (세이프타임즈 / 241104)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으로 '온 부산이 당신처럼 애지중지' 프로젝트를 시행함
'온 부산이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산시와 시 교육청이 지역대학, 자치구 등과 연계해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아이의 성장 전 과정을 책임지는 프로젝트임

부산 주요 인구이슈

"부산·경남 행정통합 속도낸다... 공론화위 출범" (경남신문 / 241108)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는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발표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린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구축해 경제수도 육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인구감소로 텅 빈 부산 옛도심, 2030년까지 빈집 2천채 정비" (연합뉴스 / 241121)

부산시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대대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4가지 방안을 담은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함
부산시는 지금까지 총 4천343채를 정비하였고, 2025년 47억원을 투입해 180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 2천채를 정비할 예정임

"부산시 인구정책 재설계 한다" (국제신문 / 24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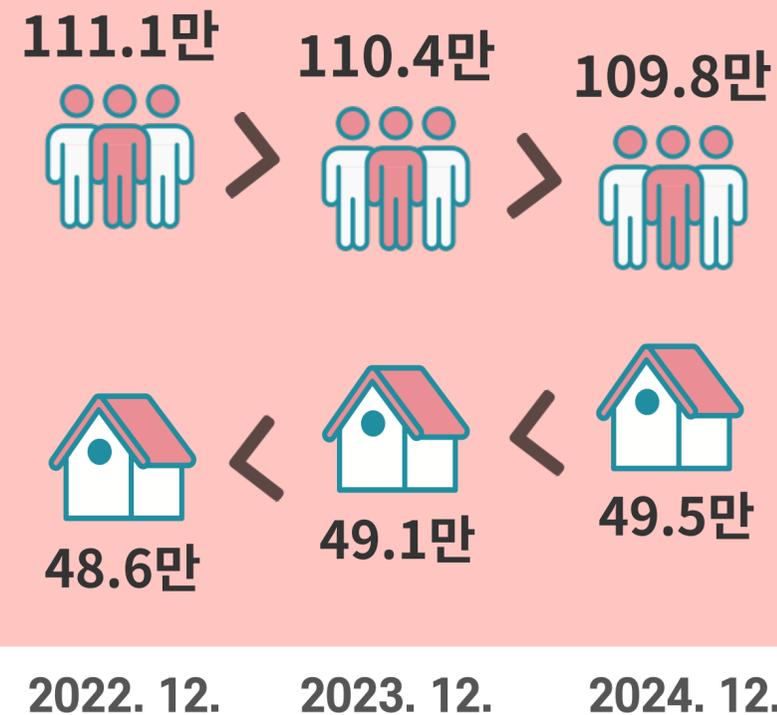
부산시는 내년부터 이민자와 다문화가정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며,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인구전략연구센터로 개편해 연구 기능을 강화함. 또한,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임

울산 주요 인구동향



주민등록인구, 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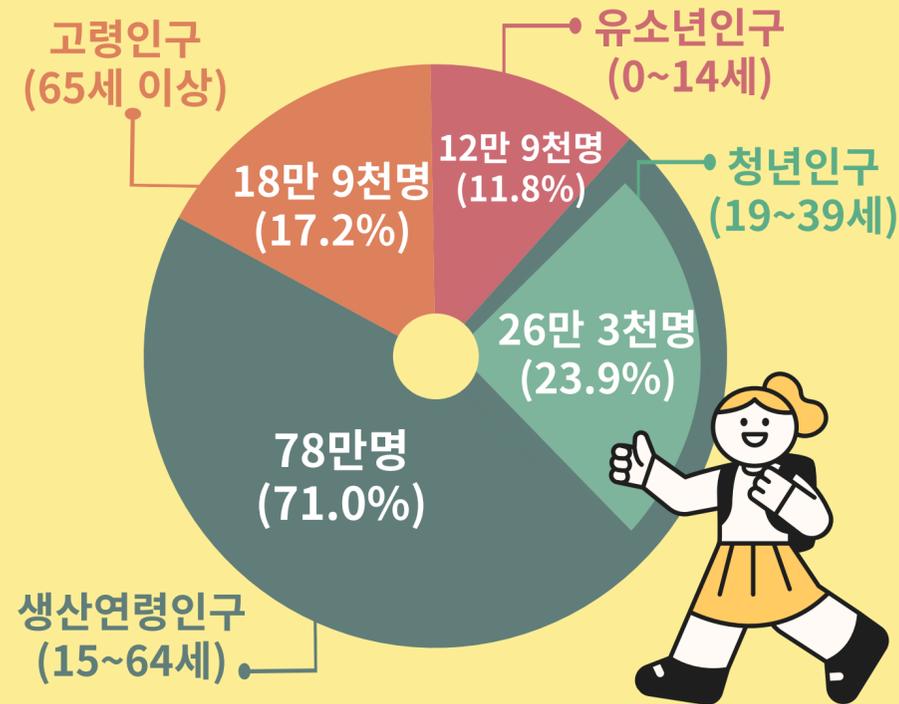
(단위: 명, 호)



※ 출처 : 주민등록인구현황

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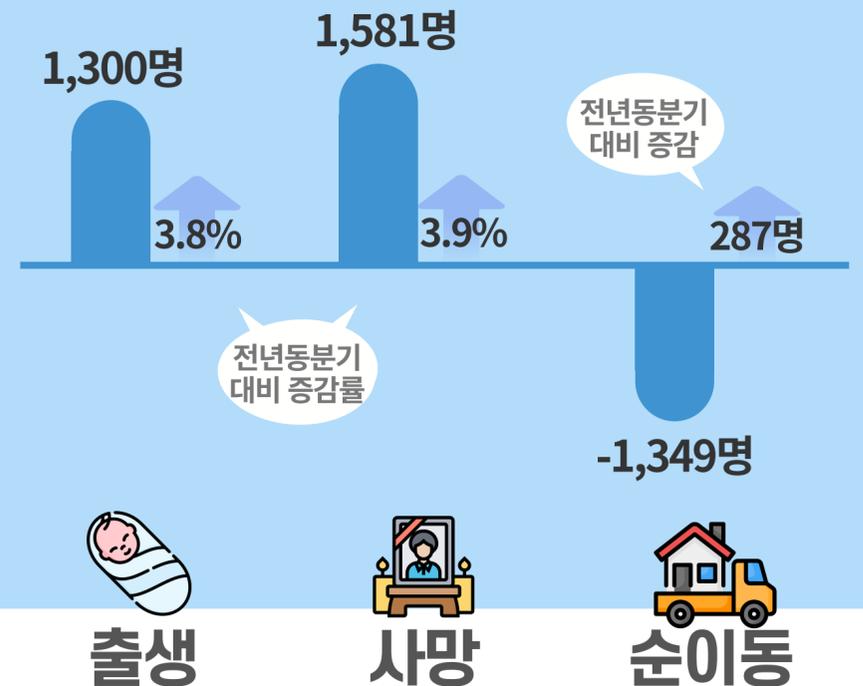
(단위: 명, %)



※ 출처 : 2024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출생, 사망, 순이동자 수

(단위: 명, %)



※ 출처 : 인구동향조사(2024년 3분기 잠정치), 국내인구이동통계(2024년 3분기)

울산 주요 인구이슈

"지방소멸 위기 탈출 컨트롤타워... '저출생 극복 울산추진본부' 출범" (울산매일신문 / 241003)

산업수도 울산을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한 '저출생 극복 울산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함. 울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를 민간 주도로 극복해보고자 상공계와 금융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여성계, 언론계가 손잡고 추진본부를 꾸림

"외국인 노동자 더 쉽게 데려오자 '울산형 광역 비자' 연구 나서" (파이낸셜뉴스 / 241025)

울산시는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형 광역 비자' 설계 연구에 나섬

울산시는 법무부의 광역 비자 제도 추진 일정에 맞춰 연내에 울산형 광역 비자(안)를 마련하고 오는 2025년에 시행할 계획임

"울산청년미래센터 개소...취약 청년 사회진입 돕는다" (울산매일신문 / 241030)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지원하는 '울산청년미래센터'가 30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감

청년인구의 7%인 1만9,222명이 청년미래센터가 전담지원하는 취약청년으로 추산되며,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함

울산 주요 인구이슈

"울산, 기회발전특구 3곳 지정...11개 기업 22조 투자" (한국경제 / 241107)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울산북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등 전국 최대 규모 420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 특구에는 투자 선도 기업 11개사가 참여하며 총 22조원을 투자해 2차전지산업 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전환, 선도 기업 투자를 통한 대·중·소기업, 연관 산업 상생 발전 등에 나설 계획임

"포항-경주-울산, 산업 동맹 맺는다...내년 상설협력기구 출범" (서울경제 / 241128)

포항·경주·울산시는 내년 1월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상설 협력기구를 만들고 특별법도 제정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임. 추진단은 세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오름동맹의 공동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인구가 울산의 힘이다! 울산 인구 대책위 출범" (브릿지경제 / 24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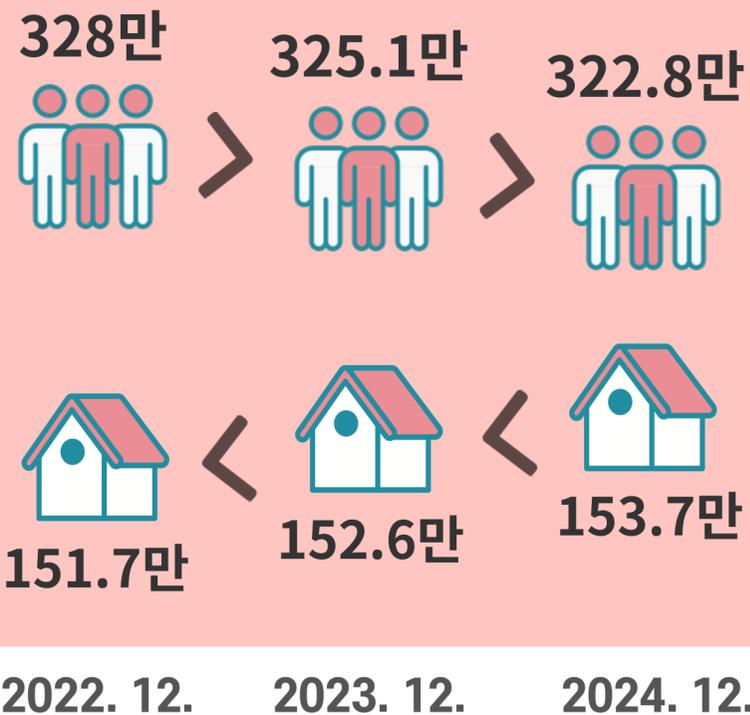
울산 지역의 저출생 위기와 여성인구 유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는 '울산 인구업(UP) 전략본부'를 출범함
발표된 전략과제는 △청년 여성인구 유입 촉진 △출산·양육 지원 확대와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청년 친화적 일자리와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산업 특화 외국인 유입 정책으로 글로벌 도시 준비 △민관 협력 및 실행력 강화 등 분야별 핵심방향을 담고 있음

경남 주요 인구동향



주민등록인구, 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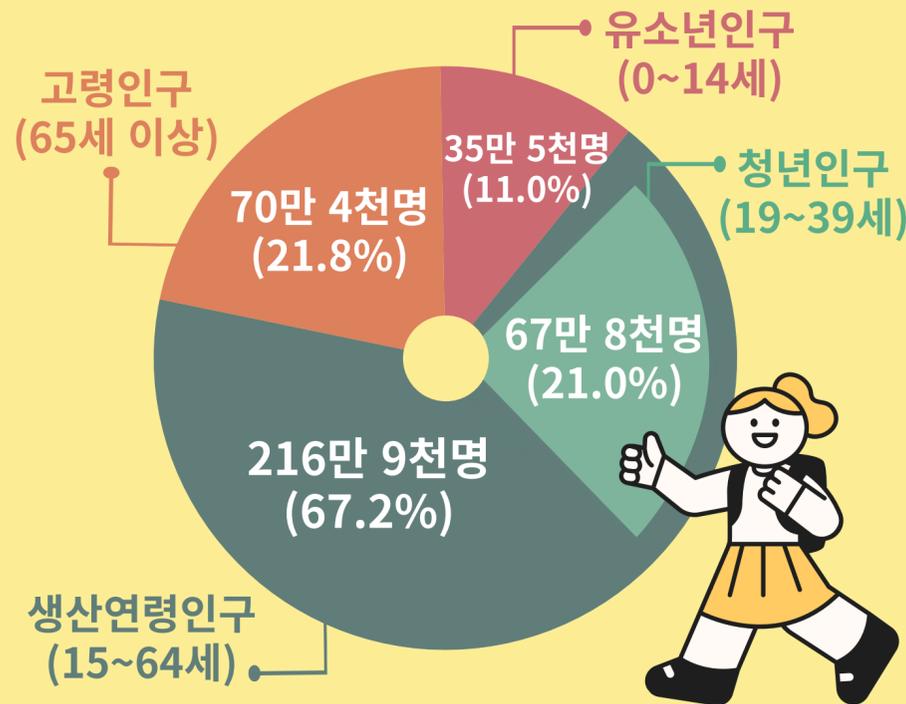
(단위: 명, 호)



※ 출처 : 주민등록인구현황

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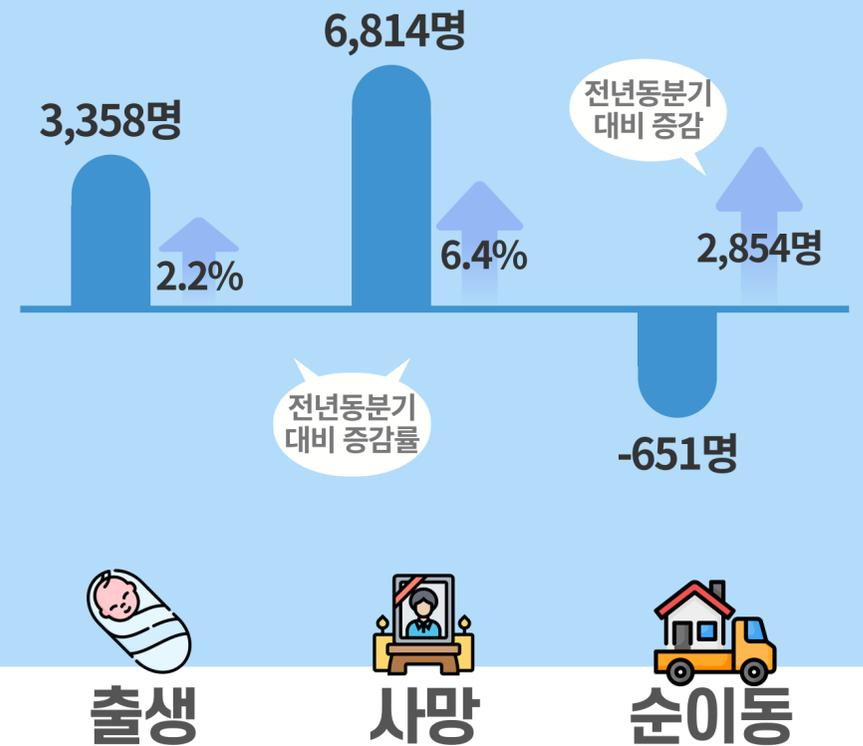
(단위: 명, %)



※ 출처 : 2024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출생, 사망, 순이동자 수

(단위: 명, %)



※ 출처 : 인구동향조사(2024년 3분기 잠정치), 국내인구이동통계(2024년 3분기)

경남 주요 인구이슈

"경남 사천·거창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된다" (부산일보 / 241007)

경남도는 현재 1곳(밀양)에 불과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원정 산후조리를 줄이는 등 출산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자 2028년까지 사천시에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거창군에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여 총 3곳으로 늘린다고 밝힘

"경남 첫 '거점형 유치원' 내년 3월 문 연다" (경남도민일보 / 241009)

경남에서 처음으로 '거점형 유치원'이 내년 3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월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문을 열 예정임
'거점형 유치원'은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소규모이거나 휴원 중인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한 유치원을 말함

"거창·산청군,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선정" (경남일보 / 241106)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역 11곳을 선정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거창군과 산청군이 포함됨

경남 주요 인구이슈

"경남도, 인구감소 대응·대학협력 부서 신설...내년 1월 조직개편" (연합뉴스 / 241112)

경남도가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구를 개편할 예정임.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획조정실 산하 미래전략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구정책 개발·연구, 지역소멸, 저출산 극복, 자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전담할 것임

"양산시 덕계동, 인구 2만명 돌파...웅상읍 분리 후 18년만" (뉴시스 / 241118)

경남 양산시는 2007년 웅상읍에서 분리된 이후 약 18년만에 덕계동이 최근 인구 2만명을 돌파함
내년에는 신규아파트 48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3000가구 규모의 덕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신설...출산·고령·청년 정책 추진" (뉴스1 / 241224)

경남 진주시가 인구청년정책관과 교통안전국을 신설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함.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진주형 청년정책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인구청년정책관'을 부시장 직속 기관으로 신설함

부산(0.7명), 울산·경남(각 0.83명) 모두 전년동분기 대비 합계출산율 증가

※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잠정): 0.76명

* 출처: 2024년 9월 인구동향(통계청)

